중국·러시아
’19. 9. 24. ~ 10. 4.

- 2019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순 서

Ⅰ.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 2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 3

Ⅲ. 출장일정 및 활동사항 ····· 4

Ⅳ. 공무국외축장 향후 활용방안 ····· 51

참고 1. 일자별 활동사항 보고자료 ····· 58

참고 2. 공무국외출장 감상문 ····· 80

Ⅰ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 출장목적

○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2019.3.29.)

○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 출장 개요

○ 출장 일시 : 2019. 9. 24.(화) ~ 10. 4.(금) [10박 11일]

○ 출장 지역 : 중국, 러시아

○ 출장 인원 : 9명(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명, 직원 3명)

○ 출장 경비 : 38,852천원

○ 출장 주요 내용

- 상해 임시정부, 만국공묘, 신규식 선생 거주지 등 답사
- 중국 호남농업대학에 소재한 류자명 선생 기념관 방문
- 충칭 연화지 청사(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방문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등 이상설 선생 유적지 답사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구분	직위	성명	업무내용
공통과제	전체의원	-	▸ 중국, 러시아 임시정부 유적지 및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 상해, 남경, 창사, 계림, 중경 임시정부 피난처 답사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일 유적지 답사
1조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활동 연구)	위원장	전원표	▸ 일제강점기 충북출신 독립운동가 조사 ▸ 류자명 선생(충주 출신), 신규식 선생(청주 출신) 이상설 선생(진천 출신)활동 및 의의 조사 ▸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방향 제시
	의 원	정상교	
	의 원	송미애	
2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관광자원화 정책 추진)	부위원장	허창원	▸ 답사 내용 정리 및 대도민 공개 - 각급 학교 및 도민에게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충북출신 독립운동가 소재를 관광상품화하여 애국심, 애향심을 고취, 충북 홍보자료로 활용
	의 원	연철흠	
	의 원	이옥규	
행정지원반 (전문위원실, 총무담당관실)	수석 전문위원	곽영학	▸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추진(총괄) ▸ 의원지원 총괄 및 현장 기관방문 지원
	주무관 (임기나급)	이제완	▸ 답사 장소 및 일정 계획 및 추진(실무) ▸ 답사장소 소개 및 내용 요약 및 정리/보도자료 제공
	주무관 (행정7)	임재성	▸ 답사 장소 및 일정 계획 및 추진(실무) ▸ 연수단 사진촬영 및 현장자료 수집 등 지원

Ⅲ 출장일정 및 활동사항

□ 9월 24일(1일차) : 인천 → 상해

○ 서금이로(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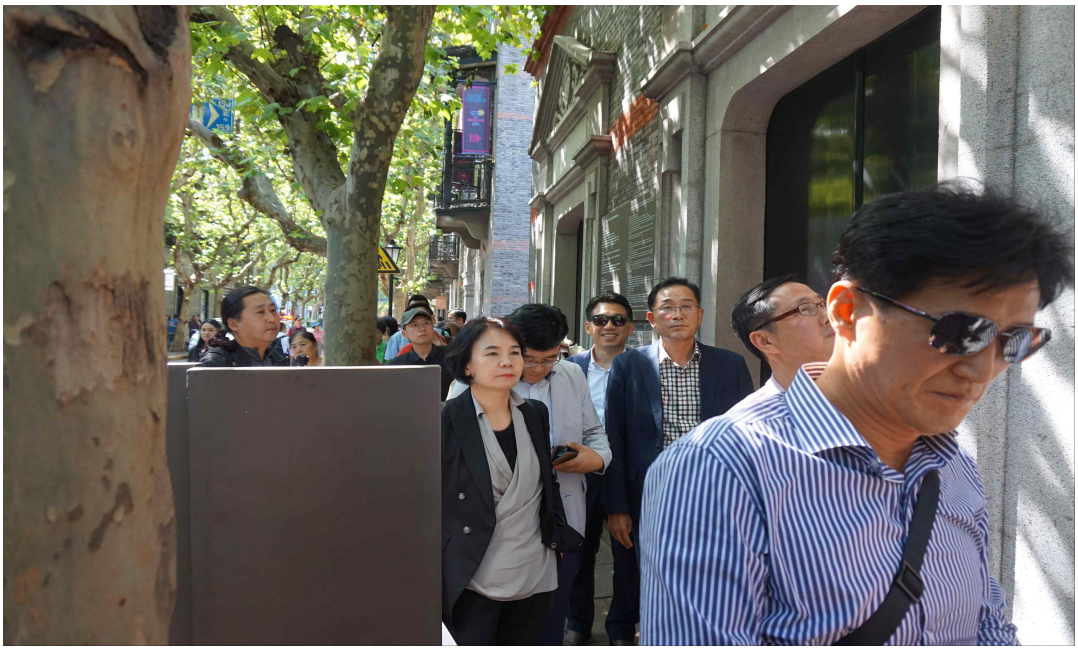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거리 '서금이로'

첫날(1일) 일정은 오전 10시쯤 상하이 푸둥 공항에 도착, 점심을 먹고 '중국의 명동'으로 불리는 서금이로(옛 김신부로)에서 시작했다.

서금이로는 명품 매장과 식당이 밀집한 번화가로 두 번째 청사가 있던 회해중로(淮海中路)와 이어진다. 김구 선생 가족이 살았던 영경방 10호와 예관 신규식 선생 거주지,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 등도 한두 마장 거리에 있었다.

서금이로는 당시 프랑스 조계지였다. 이 부근은 프랑스 조계지였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자주 옮겨 다닐 수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자금이 없어 집세조차 매월 내지 못해 이사를 자주 하였다.

이곳 김신부로 22호 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 임시헌장이 발표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마당로 청사)





'마당로 청사'는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던 1932년 4월까지 사용했던 상하이 마지막 청사. 임시정부 청사에는 김구 선생 집무실과 침실, 부엌 등도 옛 모습대로 재현해 놓았다.

○ 중국 제1차 전국 대표대회지(중국 공산당 탄생지)





중국 제1차 전국 대표대회지

○ 노신공원(루쉰공원)

주소: 상해시 홍구구 사천북로 2288호(노신공원 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장소. 당시 군중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의거 장소로는 좁다. 실제로 루신[1]동상이 입구 앞에 서 있는 광장이라고 한다. 윤의사의 의거 현장 표지석 자리에는 윤의사의 의거로 사망한 시라카와 요시노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탑이 있었다. 일제가 패망한 다음 상하이 시민들이 그 탑을 없애버리고 대신 윤 의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윤 의사의 의거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윤 의사의 폭탄의거로 사망하거나 다친 인물의 쟁쟁한 면 때문이다.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등이 사망했다.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시부로 중장은 한쪽 눈을 실명했고,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당은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특히 오른발이 잘린 주중공사 시게미쓰 마모루는 의거 13년 뒤인 1945년 9월 2일, 일본 외무대신 자격으로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인물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대단했던 영웅들이었던 셈이다.

1932멷 윤의사는 오사카를 거쳐 결국 가나자와에서 순국했다.

---

1) 루쉰은 원래 의학을 공부하러 일본 유학을 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슬라이드를 보는데 일본군에 의해 중국인이 처형당하는 장면에 이를 구경하는 중국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인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고 한다.





루쉰공원 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

○ 황포강 의거지

상하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찾는 곳 중 하나.
상하이와 동의어. 중국 근대의 출발점.
김익상이 다나카를 처단하려고 했던 곳은 현재 상해시 외탄공원의 북쪽으로 추정된다.
현재 구강로와 이어지는 부두 근처가 의거지로 추정된다.

상하이 여행객에게는 와이탄과 연결해 난징동로(南京東路) 보행가를 걷는 것도 필수 코스가 돼 있다. 100년씩은 됐음직한 유럽식 건축에는 라오상하이(老上海)의 정취가 가득하고, 좌우로 즐비한 현대 건축물들은 세련된 의상과 첨단 정보기술(IT) 기기들과 함께 21세기의 상하이를 자랑하는 것 같다.
난징동로에서도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적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난징동로 보행가는 동서 약 1㎞ 정도다. 그 중간에 스제광장(世紀廣場)이 있고, 이 광장의 대각선 서북방향으로 셴스대루(先施大樓, 난징동로 670호)라는 바로크식 건물이 있다. 이 건물 1층은 상하이 패션스토어이고 2층 이상으로는 진장즈싱(錦江之星)이란 모텔이 있다. 이곳에서 1922년 고려공산당이 창당됐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국내 대표 8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에서 온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 이동휘 위원장을 수위로 13인의 중앙위원을 선임했다. 이동휘는 1919년 임시정부가 결성됐을 때 국무총리였다. 이동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와서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하며 임정의 민족 대표성은 크게 확장됐다.

2일차: 상해-남경

○ 송경령 능원(만국공묘)

예관신규식 선생을 비롯해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돌가가신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던 묘소.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노백린(盧伯麟), 김인전(金仁全), 안태국(安泰國)"선생의 묘지석이 있고 아래에 대한민국으로 이장했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묻혀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 영어로 쓰인 많은 외국인들의 무덤도 있다.

예관(睨觀) 신규식(申圭植) 선생은 구한말 무관학교를 나와 육군 참위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에 분격하여 자결하였다가 시신경을 다쳐 한 쪽 눈을 잃었다. 그래서 흘겨보는 것 같아서 호를 '睨觀(흘겨볼 예, 볼 관)'이라 했다.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신해혁명에 가담하여 손문(孫文)과 동지적 관계를 맺으며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설립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신 분이다. 임정이 분열되는 것에 통분하여 25일 간 단식을 하시며 '정부'라는 마지막 말을 희미하게 남기며 돌아가셨다.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나라는 멸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할 수 없다'는 유명한 글이 담긴 <한국통사>(韓國痛史)라는 역사책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상하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다.

노백린 선생은 장군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무인으로서 임시정부 군부총장을 역임하시며 평생 항일 투쟁에 헌신하였다. 앞날을 예고하며 육군보다는 공군에 주력

해야 한다며 미국에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인전 선생은 목사시며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군사를 양성하고 군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결성하셨다.

안태국 선생은 대한제국에서 하급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다. 1909년 이완용 저격 사건인 이재명 사건에 연루되어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1911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시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내무총장 비서관을 역임하시고 병으로 작고하셨다.



○ 남경 천녕사(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터)

주소: 강소성 남경시 강저구 천녕사. 서탕넨 저수지에서 1킬로 걸어야 한다.(20분 정도 산을 타고 올라야 한다)

난징 천녕사는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조선력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3기 훈련생의 훈련장소다. 1930년대 만주사변과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자 중국의 정세는 크게 요동친다. 김원봉은 1932년 7월, 남경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는 제1기부터 3기까지 총 125명의 청년 간부들을 양성하였는데, 천녕사는 1935년에 3기생들이 훈련받던 장소다. 앞선 1기와 2기생이 훈련했던 장소는 일제의 공습으로 현재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당시 훈련을 받으러 온 청년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당대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놓쳐선 안된다. 고향에서 적당히 부역하면 별다른 근심 없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육사[2]와 정율성[3] 같은 청년들은 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간부학교 졸업생들은 뒷날 조선의용대(義勇隊)의 핵심세력이 되었고, 일부는 다시 광복군의 주요 무장역량으로 성장했다. 중국군의 지원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시된 군사간부 교육이었지만 간부학교는 이후 항일 무장투쟁을 담당할 주역을 길러낸 것이었다.

---

2) 경상북도 안동 출신. 1925년 20대 초반에 가족이 대구로 이사한 뒤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1927년 10월 18일 일어난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큰형인 원기, 맏동생 원일과 함께 처음 투옥되었다. 문단 등단 시기는 《조선일보》에 〈말〉을 발표한 1930년이며,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중국과 대구, 경성부를 오가면서 항일 운동을 하고 시인부락, 자오선 동인으로 작품도 발표했다. 그동안 대구 격문 사건 등으로 수차례 체포, 구금되었다. 중화민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에서 난징에 창설해 김원봉이 조선인 항일 군관 훈련반(제6대대) 대장에 있던 군사학교에 1932년 9월 입학하여 보병 육성과 특수 부대원 훈련을 받고 이듬해 4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상하이를 경유하여 귀국. 1943년 어머니와 큰형의 소상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체포되어 베이핑(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 다음해인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1914년 전남 광주 출신. 1933년에 정율성의 셋째 형 정의은이 중국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2기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광주에 방문하자, 그는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의열단에 가입했다. 그는 의열단이 부여한 비밀 업무로 난징(南京)의 고루(鼓樓) 전화국에서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으며, 신분 은폐를 겸하여 상하이를 오가며 소련 레닌그라드음악원 출신 여교수 크리노와(Krenowa)에게 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웠다. 정율성이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시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 시기에 어릴적 이름인 '부은(富恩)' 대신에 '선율(旋律)'로써 '성공(成功)'하겠다는 의미에서 '율성(律成)'으로 개명했다. 1937년 10월 옌안(延安)으로 이주하여 루쉰예술학원(魯迅藝術學院), 중국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中国人民抗日军事政治大学) 등에서 학습을 했다. 정율성은 1939년 1월에 중국 공산당의 가입하여 문예오락 일을 맡았으며, 《팔로군행진곡》을 포함하여 8곡으로 구성된 '팔로군 대합창(八路軍大合唱)'을 작곡하였다. '팔로군행진곡'은 당시 팔로군에서 널리 애창되었으며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채택되었다. 정설송은 항일운동가로 국무원 외사판공실 비서장, 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거쳐 중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초대 총리인 저우언라이의 양녀이기도 하다. 1942년에는 옌안을 떠나 조선 혁명군 정학교에서 음악장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유격전가', '처녀 적녀성', '조선 의용군 행진곡', '연안송' 등 항일성이 짙은 노래를 작곡하여 명성을 얻었다. 정율성은 1945년 해방이 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 단장, 조선음악대학 작곡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 행진곡》, 《두만강》, 《동해어부》 등을 작곡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저우언라이의 요구로 김일성은 정율성을 중국으로 파견했고, 중국에 입국한 그는 음악 활동에 몰두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했다. 1976년 12월 7일에 베이징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하였고 바바오산 혁명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남경 천녕사(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터)

○ 금릉대학(현 남경대학)

금릉대학(현 남경대학)은 애국지사 여운형, 김약수[4], 조동호[5], 김마리아[6] 등이 수학한 중국 최고 대학 중 하나다, 우리에겐 약산 김원봉 장군이 의열단을 만들기 전 공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십 수년이 지난 지난 1935년 7월, 김원봉은 다시 금릉대학을 찾는다. 금릉대학 강당인 대례당에서 의열단, 신익희의 신한독립당, 최동오의 조선혁명당,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김규식의 미주 한인독립당 외 최창익 등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하나돼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릉대학(현 난징대학)에 남아 있는 유산 중 '대례당' 만이 유일하게 김원봉 장군과 애국지사들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았다.



4)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이며 정부 수립 후 제헌의원과 초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출옥하여 월북했다.
5) 충북 옥천출신 사회주의 운동가·독립운동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고려공산당 상하이지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귀국 후 조선공산당 창당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 광복 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활약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동호 [趙東祜]
6)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 상해애국부인회 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교육자.





금릉대학

3일차: 남경

○ 중앙반점

1933년 5월, 김구 선생이 장제스 총통과의 회담을 위해 머물렀던 장소다. 현재도 난징시 최중심부에서 영업 중이다.
장제스 총통은 김구 선생과회담한 후 중앙육군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 한국 청년들이 정식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두 사람의 회담이 이뤄진 정확한 회담장은 중앙반점 뒤에 위치한 총통부다. 총통부는 지금도 난징 최고 관광지 중 하나다.



◯이제항위안부 기념관

리지샹위안소 유적진열관 은 2015년 12월 1일 개관했다. 2003년 11월 21일, 박 할머니가 현장을 찾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 라고 증언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난징 중심부에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다. 총 3,000㎡ 규모로 1,600점의 전시물과 680장의 사진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 진열관 가운데에는 마당이 있는데, 한쪽 벽면이 70명의 할머니 얼굴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70명 할머니 중 다수가 한국 출신이다. 광장 가운데는 박영심 할머니가 위안부 시절 임신했을 당시 모습이 동상으로 서 있다.



○남경대도살 기념관

1937년 11월,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예정도 없이 곧바로 수도 난징을 향해 진격해 왔다. 전면적인 공격에 들어간 일본군은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하고 성안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성안에 남아 있던 50, 60만의 시민들은 공황 상태 속에서 1938년 2월까지 6주간에 걸쳐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에서는 '난징 사건'으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난징 대도살(大屠殺)'이라고 부르는 아시아판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서막이었다. 그것은 또 '사람들이 이러한 대량학살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에 대해 수동적인 방관자가 된 것이라는 비참한 교훈'(아이리스 장)을 남긴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남경대도살 희생자 사진

○ 남경항공열사공묘

항일 항공열사 공묘(航空烈士公墓)는 중국이 1932년 상해전쟁에서 전사한 공군을 안장하기 위해 조성한 묘원이다. 뒷날, 중일전쟁(1937~1945) 때 중국을 돕다가 희생된 외국인들도 안장하였다. 공묘에 봉안된 전사는 중국인 870위(位), 미국인 2,197위, 소련인 237위, 한국인 2위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1600여 대의 압도적 항공 전력으로 고작 300대에 불과한 중국 항공대를 섬멸하고 무제한 폭격으로 중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 작전은 1300여 대에 이르는 소련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결사 항전한 중국 항공대의 반격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공권은 이내 전력이 우월한 일본이 장악해 버렸다. 이러한 전황을 반전시킨 것은 1941년 12월 미국지원항공대가 항일전을 전개하면서부터였다. 1942년에는 히말라야 항공노선을 개척, 중국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1943년 10월 이후 중국과 미국 항공대는 연합단을 조직하면서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제공권을 되찾기 시작했다.

항공열사공묘에 안장된 전사들 3306명의 희생자 가운데 두 사람이 한국인이다.

전상국(1907~1938)은 황해도 신천 출신이다. 일본 다치가와(立川) 비행학교를 나온 뒤, 일본에서의 항공학교 교관직 제의를 거절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 중앙항공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1931년 2등 비행사 자격으로 중국 공군에 입대해 항일활동을

펼쳤고, 1936년에는 민족혁명당 당원이 되어 우리 독립투사들의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일전쟁 초기에 중국항공대의 일원으로 출격해 17번의 공중 운송 임무와 15번의 폭격 투하 임무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일본군의 사기를 꺾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전상국은 1938년 8월, 양쯔강 공중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전해져 온다. 그러나 대만 공군에서 발행한 <공군충열록(忠烈錄)>에 따르면 그는 공무로 한커우(漢口)에서 C.B기 74호로 사천 성도로 가다가 발동기 고장으로, 호북(湖北) 의창(宜昌) 서쪽 남타강(南沱江)에 추락, 순국하였다. 향년 32세.

김원영(1919~1945)은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동향인 김구를 따라 독립운동을 한 김보연의 아들이다. 1938년에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 대원으로 활동하였고 공군군관학교를 나와 비행사로 입문하였다.

미군 지원 프로젝트에 따라 1944년 2월 인도에서 비행훈련을 추가로 받고 중미연합항공대에 배속되었다. 1945년 3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출격했으나 불행하게도 애기(愛機)와 함께 추락해 순국하였다. 향년 26세.

식민지 시절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항일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일본군 장교나 하사관이 되고자 했던 청년들과는 달리 국외로 망명하여 여러 갈래의 독립군 부대로 들어가거나 중국 국민당이나 공산당 계열의 정규군이 되어 일제와 싸웠다.





남경항공열사공묘

4일차: 장사

◯ 호남농업대학교 방문(유자명기념관 방문)

우근(友槿) 류자명(柳子明) 선생

■ 출생 및 항일운동 투신

류자명은 1894년 음력 1월 13일 충주군 이안면(利安面) 삼주리(三洲里, 현재의 영평리 이류면)에서, 부친 유종근(柳種根)과 모친 이씨(李綺魯)의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흥갑(興甲), 학생 때 이름은 흥식(興湜)이었다. '자명' 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호는 우근(友槿)이었고, 우생(友生)이란 별명도 사용하였다.

1910년 11월 이난영(李蘭永)과 혼인하였다. 슬하에 기용·기형 형제를 두었고, 인광을 비롯한 10명의 손주를 두었다. 1911년 충주공립보통학교(현재의 충주교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연정학원(硏精學院)을 거쳐 1912년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에 입학하였다. 1916년 졸업 후 충주간이농업학교(현재의 충주농업고등학교) 교원으로 취직하여, 보통학교 4학년 농업과 담임을 맡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충주경찰서에 탐지됨에 따라, 보통학교 동창 황인성(黃仁性)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피신하였다.

1919년 6월 신의주를 거쳐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여운형(呂運亨)의 소개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비서로 활동하였다. 그는 신채호(申采浩)의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역사」 강연을 듣고, 크게 감명 받고, 이후 신채호를 존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 『한 혁명가의 회억』 『러시아 문학의 현실과 이상』 등을 읽으면서, 아나키즘에도 공감되었다. 그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일제침략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당면한 한국사회는 계급모순보다 민족모순이 우선적이라 생각하였다.

■ 독립운동에의 헌신과 국제주의자로서의 면모

1) 의열단 활동 참여

1922년 4월경 그는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신채호·이회영(李會榮) 등과 교유하다가, 그해 겨울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톈진(天津)으로 갔다. 이 곳에서

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이종암(李鍾岩)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의열단간사(義烈團簡史)』를 저술하여 의열단의 정체성 확보에 일조하는 한편, 통신연락 및 선전활동을 주관하였다.

이 시기 류자명의 의열단 활동에 대해, 김성숙(金星淑)은 "김원봉은 앞에 내세운 사람이고 실제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회고하였다. 정화암(鄭華岩)도 이 무렵 의열단에서 발표한 문건은 대부분 류자명이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지적하였다.

류자명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인민을 탄압 · 학살함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반대는 일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며, 일제 침략원흉의 암살과 일제 통치기관의 폭파는 곧 반일 애국행동"이라는 논리로, 의열단의 투쟁노선을 정당화하였다.

류자명은 의열단원의 진보적인 사고 형태를 아나키즘적인 것으로 이끌었다. 이는「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을 통해 그 일단이 드러난다. 1922년 겨울 김원봉은 북경의 신채호를 방문, 의열단의 행동강령 및 투쟁목표를 성문화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김원봉의 신채호 방문은 류자명의 조언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류자명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집필도 도왔다.

1924년 1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이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김원봉이 광둥성(廣東省)에서 의열단원의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및 중산대학(中山大學) 입학을 모색하던 무렵에는, 류자명이 의열단의 의열투쟁을 주도하였다. 1925년 3월의 일제밀정 김달하(金達河) 처단과 1926년 12월의 나석주의거(羅錫疇義擧)는 그의 지도하에 결행되었다.

2) 중국국민혁명 체험

그런데 류자명은 1924년 1월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립되고, 중국국민혁명이 시작되자, 크게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다. 그는 "북벌(北伐)을 시작한 뒤로 혁명군(革命軍이) 일사천리의 기세로 장강(長江) 이북까지 승승장구하고, 강남 각지에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휘날리며, 도처에서 민중이 환호하게 된 것은 북벌군의 '황포정신(黃埔精神)'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927년 4월 12일 장제스(蔣介石)는 상하이에서 국민당내 좌파세력과 공산당세력을 제거하는 정변(政變)을 일으키고,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를 수립하였다. 당시 김원봉과 함께 광저우(廣州)에 머물던 그는 "맑게 개었던 하늘에 돌연히 검은 구름이 감돌고,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는 것을 본 나는 비통한 감정을" 품었다고 하였다. 또 "어제 날의 동지가 오늘은 원수로 변하고, 어제 날의 혁명자가 오늘은 반혁명자로 되었다"고, 국공합작의 파국과 중국국민혁명의 동족상잔을 안타까워 하였다.

3) 중국인 사회 동참

이후 류자명은 우한(武漢)으로 이동하였는데, 1927년 여름 우한에는 류자명 · 김원봉 · 이검운(李檢雲) · 권준(權畯) · 안재환(安載煥) 등의 의열단원 및 진보적 인물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는 중국 · 인도 · 한국의 반제 · 반일 민족운동가들이 결성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에, 김규식(金奎植) · 이검운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이어서 남창봉기(南昌蜂起)와 광주봉기(廣州蜂起)의 피바람을 피해 난징(南京)으로 옮긴 다음에는, 중일전쟁 때까지 난징 · 상하이 · 취앤저우(泉州) 등지를 무대로 중국의 '이상촌(理想村) 건설활동'에 몰두하였다.

1929년 류자명은 중국인 친구 위앤샤오시앤(袁紹先)의 요청으로 한복염열사기념농장(韓復炎烈士紀念農場)에서 농업생산을 지도하였고, 1930년에는 천판위(陳範豫)의 요청으로 푸젠성(福建省) 취앤저우의 여명고중(黎明高中)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한편, 취앤저우지방의 열대식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중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쾅후성(匡互生)이 설립한 상하이 입달학원(立達學院)에서 농업과와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이후에도 동류실험농장 · 복건원예시험장 · 광시성(廣西省)의 영조농장(靈棗農場) 등지에서 농업 기술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예작물에 대해 연구하였다.

1930년 1월 입달학원에서 근무할 때, 류자명은 유기석(柳基石) · 정해리(鄭海理) · 안공근(安恭根) 등과 함께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을 결성하였다. 류자명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선출되었다. 1931년 11월 중순에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간부 왕야차오(王亞樵)와 화쥔스(華均實)의 제안으로 결성된 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에도 참가하였다.

1934년 봄 류자명은 쾅후성의 친구이자 국민혁명군 후종난(胡宗南)부대 참모장인 장싱보(張性伯)로부터 난징근교 청룡산(青龍山)에 있는 제일농장(第一農場) 관리를 요청받고, 입달학원 고중(高中)과정의 농촌청년과 3학년생 5명을 데리고, 1년여 동안 제일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때 청룡산에서 훈련 중이던 의열단이 운영하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 입교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1935년 입달학원을 떠나 국민당정부 건설위원회(國民黨政府建設委員會)의 동류실험농장(東流實驗農場)으로 가서 원예를 지도하였다.

■ 중일전쟁기 독립운동과 한·중 국제연대활동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자, 한인들은 이를 민족해방과 조국광복의 '호기(好機)'로 판단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승전이 한국의 독립을 담보해 줄 것으로 믿었다. 한인 독립운동진영에서는 중국측에 대해

항일투쟁의 성과 및 혁명역량 등을 선전하며, 한·중합작의 항일투쟁을 역설하였다. 같은 시기 국민당정부측에서도 중일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대비하여 한인들의 항일투쟁 역량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인진영 내부에서는 협동과 단결의 통일운동이 시도되었고, 새로운 협동전선의 조직을 추진한 결과,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의 중간·좌파 민족주의자그룹은 12월 초순 한커우(漢口)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창립하였다. 같은 시기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재건'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등 우파 민족주의자그룹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결성하였다.
류자명은 자신이 쓴 조선민족전선연맹 창립선언문에서 "조선혁명(朝鮮革命)은 민족혁명(民族革命)이고, 그 전선은 '계급전선(階級戰線)'이나 '인민전선(人民戰線)'이 아닐 뿐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의 이른바 '국민전선(國民戰線)'과도 엄격히 구별되는 … 민족전선(民族戰線)"임을 천명하고, 한·중연합을 통한 항일투쟁역량의 집중, 국제적 반일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전선연맹의 최고기구는 이사회였는데, 김원봉이 자금과 지휘를 맡았고, 류자명(선전부)·한빈(韓斌, 정치부)·이춘암(李春岩, 경제부) 등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1940년 3월 류자명은 중국인 아내 유칙충(劉則忠)과 득로(得櫓, 1939년생, 북경과학기술대학 재료물리학과 교수 정년퇴임)·전휘(展輝, 1942년생, 호남대학 건축학과 교수 정년퇴임) 두 아이를 데리고, 선중조우(沈仲九) 등 중국인 친구들이 있는 푸젠성(福建省)으로 갔다. 그리하여 푸젠성정부 농업개진처(農業改進處)의 원예시험장 원예과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1941년 12월 충칭(重慶)의 복단대학(復旦大學) 교수 마종롱(馬宗融)으로부터, 회교구국협회(回敎救國協會)에서 농업기술원을 양성하기 위해, 궤이린(桂林)의 산지를 개간하여 영조농장(靈棗農場)을 만들려 하는데, 이를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궤이린으로 갔다. 이후 충칭을 무대로 전개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44년 가을 푸젠성정부의 초청으로, 가족을 데리고 다시 푸젠성 영안(永安)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국민당정부 비서장 청싱링(程星齡)이 강락신촌(康樂新村)을 각지에 개설하여 복안현(福安縣) 계병농장(溪柄農場)을 '제2촌'으로 삼고, 류자명을 그 준비처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류자명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누구도 유 선생이 화를 내거나 한 마디라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염(焱)'이라는 이름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일찍이 유 선생의 방문

을 두드리며 ‘할아버지, 할아버지’(당시 유 선생의 머리는 이미 전체가 은실과 같아서,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하고 부르면, 그는 문을 열고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가 요람에 뉘였다. ‘할아버지 흔들어 주세요’ 하고 재촉하면, 유 선생은 ‘허허’ 웃으며 흔들어 주었다. 그는 언제나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또 사람들은 그의 부인 유칙충(劉則忠)을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를 ‘큰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광동인으로 유 선생과 함께 동분서주하였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아주 민첩하고 꼼꼼하게 일하였다. 그녀와 유 선생은 모두 순박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였는데,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오면 친히 향기롭고 달콤한 케익을 만들어 대접하였다.

류자명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늘 성실하였으며, 인도주의 정신으로 중국을 사랑하였고, 그 또한 중국 인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어려웠을 때 그와 교류했던 청싱링은 “그는 중국인민의 가장 친밀한 벗이었다.” “류자명 선생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국제주의정신은 영원히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일제 패망 후 원예학 연구와 망향의 세월

1945년 8월 류자명은 복안현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때의 심정을 “나는 비록 동포들과 한자리에서 해방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였지만 서울에서, 나의 고향에서 해방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나의 동지들, 나의 동포 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웠다”고 회고하였다.
1978년 심극추(沈克秋)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일본이 투항할 때 중경의 동포들과 함께 귀국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음을 가슴 아파하였다. 일제패망 시, 그는 푸젠성에 있었기 때문에 귀국 노선을 찾을 수 없었고, 부득불 동지들과 함께 타이완(臺灣)으로 떠났던 것이다.
1946년부터 1950년 6월까지 대만성 농림처 기술실주임 · 합작농장관리소 주임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만의 농업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그는 「농업건설과 합작농장의 사명」(『대만일보(臺灣日報)』), 「합작농장과 농업합작의 여러 가지 형식」(『대만농림(臺灣農林)』)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타이완 체류 시절 류자명은 대북한국영사관 총영사 민석린(閔石麟, 민필호)과 자주 접촉을 가졌고, 1950년 1월 정화암과 함께 귀국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원적이 ‘난징(南京)’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반년 후에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한국전쟁(韓國戰爭)은 그의 귀국을 가로막았다. 조국과 고향을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후난성 부성장으로 있던 청싱링의 도움으로 창사(長沙)로 가서, 호남농학원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농학자로서 류자명은 다방면에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벼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세계농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1972년 그는 농학부와 원예학부 교수들을 거느리고 창사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출토한 벼의 종자를 고증하는 한편, 중국 벼 재배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또한 저명한 원예전문가였다. 1940년에는 「항일전쟁과 원예」란 글을 발표한 바 있었고, 「중국의 장미와 세계의 장미」(『중국원예학보(中國園藝學報)』, 1964)에서는 중국장미의 유럽전파, 중국장미와 유럽장미의 교잡과정 등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의 남방은 포도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견해를 극복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재배한 포도는 베이징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우수한 품종으로 뽑혔다. 그의 연구성과에 따라 포도 생산이 중국남방의 여러 지역에 보급되었고, 특히 후난성 지역에서는 대단위 재배를 시작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하였다. 1977년 10월 심극추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3·1운동 그 해에 나라를 떠나서 이젠 60년이 됩니다. 집이 남조선에 있기에 줄곧 고향에 편지를 못해 봅니다. 만일에 남북이 민족 대단결 회의를 열게 되면 나도 돌아가서 참가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그의 딸 유득로의 회상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 술을 한잔 마시고 혼자서 '아리랑'을 조용히 불렀다고 한다.

1983년 2월 25일 그의 90세 생일날 호남농학원에서 성대한 축하잔치가 열렸으며, 후난성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호남성인민정부 부성장 · 제5기 인민대의원 · 호남성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며, 류자명의 생사지교(生死之交)인 청싱링은 "류자명의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과 국제주의 정신은 영원토록 우리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칭송하였다.

중국 중앙국제방송국에서 이 사실을 뉴스로 방송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후손들이 방송국에 류자명의 연락주소를 문의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는 한국의 후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집에서 안절부절하며, 한국에 가야겠다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1977년 그는 심극추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의 네 식구 중에서 나 혼자 국제우호인사이고, 자식들과 외손자는 모두 중국인민입니다"라고 하였듯이, 그는 끝내 중국국적을 갖지 않고 '조선인'으로 살았다.

류자명은 1985년 4월 17일 호남성 창사에서 일생을 마쳤다. 대한민국정부는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고, 북한정부도 1978년 3급 국기훈

장을 수여하였다.

■ 한·중연대의 선구자 역할 : 중국인 친구들과의 우정

류자명에게는 중국인 지기(知己)가 많았다. 저명한 교육자 쾅후성(匡互生)·마종롱(馬宗融)·천판위(陳範豫) 등과 정치가 청싱링(程星齡)·선중조우(沈仲九), 작가 바진(巴金)·뤄스미(羅世彌), 제자 수통(粟同)·리류화(李毓華)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바진과 류자명은 60여 년 동안 우정을 나누었다. 늘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였고, 서로를 보살피며 지냈다. 심용철(沈容澈, 심용해의 동생)은 "류자명과 바진의 교류가 비교적 많았던 시기는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였다. 그 무렵 자명은 난샹(南翔) 입달학원 농촌교육과에 있었고, 마종롱·뤄스미와 교사 숙소에서 함께 지냈다. 바진 역시 마종롱과 뤄스미의 친구로, 늘 상하이에서 입달에 왔다. 자명과 바진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았다"라고 회고하였다.

바진은 그의 작품 「난징에서 상하이로 돌아오며, 從南京回上海」(1932)에서, "난징 부자묘의 어느 찻집에서 점심 겸 뭘 조금 먹었다. 모인 사람은 다섯이었는데, 상해전쟁의 앞날에 대한 얘기에 이르자, 나와 한국인친구는 격렬하게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 논쟁은 나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적었고, 「민부도상(民富渡上)」(1938)에서도 류자명을 묘사하여, "내가 작은 배에 나는 듯이 올라탔을 때, 우연히 옆에 정박해 있는 목선의 남색 중국옷을 입은 중년남성이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내친구와 몹시 닮았다. … 그는 지금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목선에는 여러 명의 한국인 남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 나는 몸을 흔들거리며 작은 배에 서서,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것 같았다. 중년부인 한 사람이 대나무 의자에서 일어나며, 깜작 놀라며 '바진!' 하고 외쳤다. 그녀는 그 친구의 아내였다"고 적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 친구는 류자명을 가리킨다. 또 「불」에 관하여(關於火, 1980)에서는

이 친구는 성이 유(柳)이고, 원예가이고 수십 년이래 여러 학교와 농장에서 일하고, 중국을 위하여 많은 원예가를 길렀다. 그는 당시 한국인 유망객(流亡客) 가운데에서도 위엄과 인망이 있었다. 내가 상하이나 궤이린·충칭·타이베이에 있을 때, 늘 그와 만났다. 지금도(1980년 1월 당시) 연락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는 호남농학원(湖南農學院)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때때로 사람을 시켜 나에게 호남의 명산물을 보내준다.

나는 40수년전 그가 일본인의 추격이 엄하여 상하이에 오면 언제나 마종롱의 집에 은거하였는데, (이러한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달 지남에 따라,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집의 주부가 나중에 단편소설 「생인처(生人妻)」를 발표한 작가 뤄수(羅淑)이다. 항전초기 뤄수가 병으로 죽어, 우리들이 궤이린과 충칭에서 만났을 때, 함께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였다. 나는 그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여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친구 유는 이미 80세를 넘겼지만, 그는 아직 창사(長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은발 머리가 태양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다."

고 회고하였다. 1983년 류자명은 그의 자서전인 『나의 회억』에서 "지금까지 나와 바진 사이의 통신연계는 그칠 사이가 없었다"라고 적었다. 그런가 하면 바진은 늘 류자명을 형님으로 모셨다. 류자명은 자신의 한문 회고록을 바진에게 보내 수정을 부탁했으며, 바진은 열심히 읽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류자명이 타계하자 바진은 즉각 조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 류자명의 민족운동관과 현재적 의미

첫째, 류자명에게 있어서, '민족'은 그가 존경했던 신채호나 의열단 등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담보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였다. 즉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울타리(즉 민족)를 되살리고 지켜 나가는 일은 곧 자신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확보는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고의 최후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리고 류자명의 민족관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가치로 한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는 민족이라는 주체성과 개별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는 민족의 가치를 지키고 다듬어 나가는 방편으로써 무정부주의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그는 전통적인 중화관념의 틀을 뛰어넘어 우리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제적 동반자로서 중국과 중국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한·중관계를 서로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청싱링 후난성 부성장과의 우정이나, 유명한 소설가 바진이 그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쓴 사실 등은 중국인들이 류자명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그의 항일역정은 “국제주의(國際主義) 속에서 걸어 간 민족주의(民族主義)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민족주의라는 감성적이고 방어적인 닫힌 공간을 뛰어넘어, 한·중 양 민족의 우호협력 나아가 동아시아 피압박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모든 민족의 새로운 근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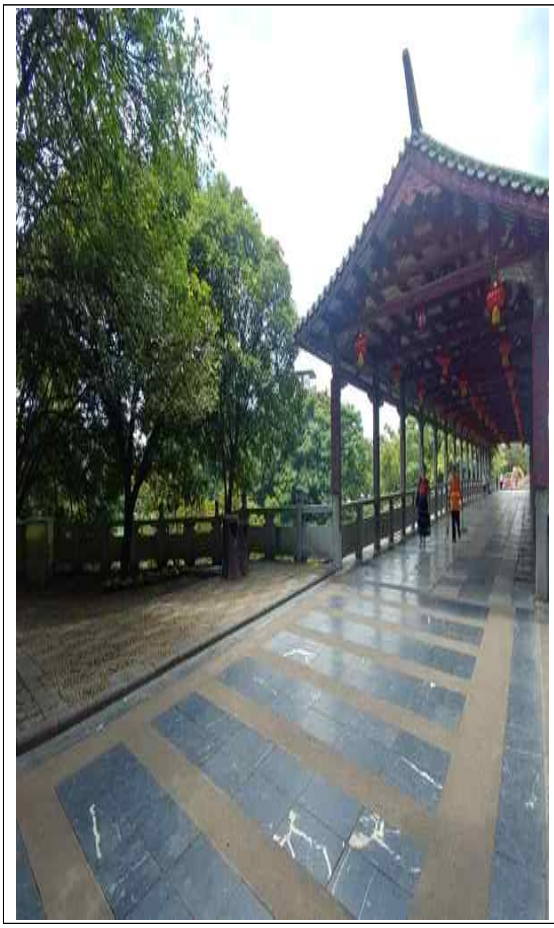





欢 迎 您

5일차: 계림

○ 칠성공원



주소: 광서장족 자치주 계림시 자유로 칠성공원 내 화교다리 앞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주년 기념으로 1959년 조성된 유료 공원. 입장료가 70위안(1만 2천원)에 이를 만큼 잘 꾸며져 있다.
1938년 10월 무한에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는 일제의 공격을 피해 1938년 12월 구이린으로 이동했다. 김원봉 장군과 조선의용대는 이곳에 본부를 차리고 조선의용통신을 발행했다.

▲ **칠성공원 내 조선의용대 본부 터**사진 속 좌측에 공터가 조선의용대 본부 터다. 현재 칠성공원 내 '화교' 입구에 있다. 역시나 아무런 표식이 없다.



6일차: 중경

○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겨온 뒤 입주했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청사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다. 특히 연화지청사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갈 때 기념비적 마지막 사진을 찍은 장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유적지 중 가장 완벽하게 복원된 장소.





○ 대한광복군 총사령부 터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고 나서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광복군 사령부 터가 원형 그대로 복원될 것이라는 확정 발표가 났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연화지 청사보다도 도심지 복판에 있다.





7일차

○ 김원봉장군 집터

주소: 중경시 남안구 탄자석 대불단정가 172호
의열단 의백, 조선혁명간부학교 교장, 조선의용대 대장,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김원봉 장군이 충청 시절 거주했던 집터. 현재는 아무런 옛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약방에서 과일가게, 그리고 폐업정리 중인 옷가게로 남아 있다. 입구에 쇼핑몰이 들어섰다.



○ 해방비거리 문화탐방





해방비거리

8일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혁명광장, 신한촌 기념비



혁명광장



신한촌 기념비

○ 극동대학 박물관, 조명희 문학비



극동대학 박물관



조명희 문학비

9일차: 우수리스크

○ 고려인 역사관, 최재형 선생 고택



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기념관



최재형 선생 고택

○ 이상설 선생 유허지





이상설 선생 유허지

○ 발해 성터





발해 성터

○고려인 민족학교 아리랑가무단 공연 관람





고려인 민족학교

10일차: 블라디보스토크

◯ 포석 조명희 문학비

조명희의 출생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수암마을. 4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1919년 3월, 26세의 나이에 3.1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됐다. 몇 개월 후 출소한 그해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도요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 중 극작가였던 김우진(1897~1926)을 만나 교류했고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단체인 흑도회에 가입했다.
1923년 귀국한 뒤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인 [金英一의死(김영일의 죽음)]와 역사극 [婆娑(파사)]를 연달아 발표했고 적로(갈대피리)라는 필명으로 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냈으며, 1925년에 카프의 창설 회원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며 조명희 대표적인 단편집 [낙동강]을 남겼다.
1927년에 김기진(1903~1985), 김동환(1901~1958), 김복진(1901~1940), 박영희(1901~1950), 안석영(1901~1950)등과 함께 경향극 단체인 '불개미극단'을 조직해 잠시 활동했으나 반체제 문학활동으로 인한 일제의 감시와 검거 위험이 목을 조여 오자 검거를 피해 1928년 7월, 처자식을 남겨둔 채 소련으로 단신 망명했다.

포석은 1923년 2월 동양서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희곡집 [김영일의 죽음]을 를 발간하고, 4월 8일 동명 32호에 [내 영혼(靈魂)의 한쪽 기행(紀行)]과 [아침]으로 문단에 나와 5년 남짓 조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 1928년 러시아혁명의 극심한 소용돌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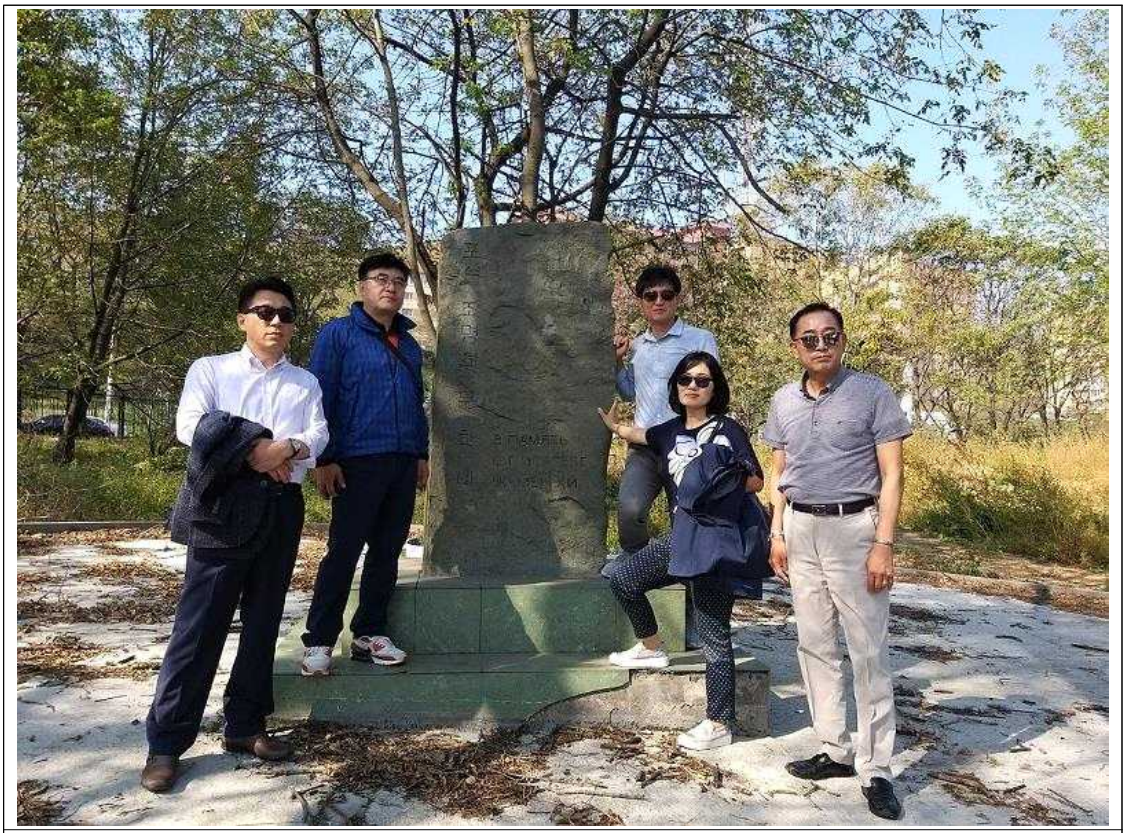
휘몰아치고 있는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포석이 조선 문단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선 최초의 창작희곡 [김영일의 죽음]을 쓰고, 최초의 조선 순회공연을 다녔다는 것이 포석의 첫 번째 문학적 업적이다. 포석은 또 1924년 조선 최초의 창작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냈으니 그것이 두 번째 문학적 업적이다. 그리고 프로문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단편소설 [낙동강]을 1927년 7월 조선지광 69호에 발표했다. 포석의 [낙동강]은 당시 조선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문학적 업적이다.

포석이 지닌 역량은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봐도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희곡, 시, 소설, 평론, 동요, 번역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포석의 문단 활동 첫 출발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동우회순회연극단'을 조직해 조선 최초의 순회공연을 벌인 기획자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천재작가 조명희. 그는 우리 근대문학 최초의 희곡을 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집도 냈다. 프롤레타리아(민중) 문학의 선구자로 부르주아(부자, 기득권)를 비판했으며, 수필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다루어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포석 조명희(1894~1938)의 문학비를 참배한 적이 있다.





포석 조명희 문학비

○ 개선문



개선문

○ 블라디보스토크 역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역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점이다. 하얼빈으로 가는 동청철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크네비치 역)으로 가는 아에로익스프레스가 분기한다.

건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역인 야로슬랍스키 역의 것과 비슷하게, 17세기의 분위기로 지어졌다. 대합실 천장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양 도시의 상징물로 장식되었다. 1994년까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나, 역사 보수와 함께 상아색으로 바뀌었다.

승강장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 지점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미국에서 제작한 증기 기관차가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블라디보스톡 역

○ 극동연방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Ⅳ 공무국외출장 향후 활용방안

□ 우근 류자명 선생 기념사업 추진

○ 현 상황

- 충주 출신 류자명 선생은 남북한과 중국에서 훈장을 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이며 선생은 중국 호남성 호남농업대학에서 근무한 공로(중국 벼농사의 1인자)로 호남농업대학 내에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음
- 선생의 고향인 충주에서 류자명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선생의 자손(중국 거주)에게 유품을 기증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유품은 시청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음.
- 최근 호남농업대학에서는 선생의 동상과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계획 중이나 예산 문제로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념사업 추진 방안

- 충주에 류자명 선생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우나,
- 유가족 측에서 부지를 기증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규모가 큰 기념관보다는 충주 시민을 비롯한 충청북도민이 자랑할 수 있는 인물로 내실 있게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충주시에 기념관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류자명 기념사업회와 함께 선생의 업적을 홍보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충주문화원이나 류자명 기념사업회에서는 중국 호남농업대학과 교류하여 류자명 선생 기념 동상과 꽃나무를 조성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류자명 선생 기념관 건립 토론회 개최
  - 충북도의회와 류자명 선생 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충주시에서 토론회 개최 (2019.11월 중)
  - 충북도의회와 류자명 선생 기념사업회 등 시민기념관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류자명 기념사업회와 함께 “류자명 선생 알리기” 등 선생의 업적을 홍보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인지도를 넓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충주문화원이나 충주 시민단체 등과 류자명선생 기념사업을 공유하고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중국 호남농업대학 측과 민간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포석 조명희 선생 기념사업 추진

○ 현 상황

- 포석 조명희선생은 충북 진천 출신이며 진천에는 포석 조명희문학관이 건립되었음. (2015.4월 개관)

  ※ 건립비 3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전체 면적 979.32㎡ 규모로 조성.

- 진천군에서는 포석 조명희선생을 기리는 사업으로 시낭송대회나 문학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문학교류는 없음.

○ 기념사업 추진 방안

- 진천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문학교류 추진
- 포석 조명희선생 관련 학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생의 업적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일본여행 자제 분위기 속에서 대체 관광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호관계를 수립하여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포석 조명희 선생 학술대회 추진
  - 국내 문학 전문가 및 조명희 선생 관련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 추진(충북도 후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고려민족학교와 교류
  - 고려민족학교 초청 등 교류방문을 통해 조명희 선생 업적 조명과 해외동포 후원방안 모색
- 충청북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호교류 제안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한국인관광객은 2016년에는 5만명, 2017년에는 10만명, 2018년에는 22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해주 정부에서는 2019년에는 약 4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한국인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블라디보스코크에는 보재 이상설 선생, 포석 조명희 선생 등 충북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한 곳으로 역사, 문화, 관광 소재가 다양함으로 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계림 칠성공원 내 조선의용대 본부 터 표지석 설치

○ 현 상황

- 일제 강점기에 김원봉 장군은 계림 칠성공원에 조선의용군 본부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하였음.
- 전문가들에 의하면 칠성공원 내 화교 앞이 본부 터라고는 하나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음.
- 계림은 유명한 관광지라 칠성공원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많은데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방안

- 충청북도와 계림이 소속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는 우호교류를 맺어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나 도의회가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광서

장족 자치구에 요청하여 조선의용대 본부터 표지석 설치 사업을 제안

○ 향후 계획

-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계림 조선의용대 본부 터 조사 후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에 표지석 설치사업 제안

□ 충청북도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 발굴 및 교육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 현 상황

- 충청북도 내에는 일제강점기 친일 잔재물이 남아 있으나 주민들은 그러한 잔재물의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친일 잔재물은 친일활동에 대한 송덕비 등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잔재물이 많으나 철거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발굴하고 역사교육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 추진 방안

- 충청북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고,

- 충청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친일 잔재물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참고1 일자별 활동사항 보고자료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1일차 주요일정 9월 24일 >

- 상해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다양한 의정활동 기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4.(화)

○ 장 소 : (상해) 서금로⇒임시정부청사⇒중공1회지⇒노신공원 (윤봉길의사 추모관)⇒황포탄의거지

○ 주요참석 : 9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 직원 3

○ 주요내용

- 상해 서금로를 중심으로 주요 항일독립유적지 견학
- 노신공원 내 윤봉길 의사 추모관 참배

❑ 주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10~16:10	◦임시정부청사, 중공1차회지, 노신공원(윤봉길 추모관) 견학	
18:00~19:40	◦황포탄의거지 견학	

❑ 주요 답사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청사>

○ 상하이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의 본거지로 상하이시기 마지막 청사로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성공시켜 독립운동의 활로를 열었다. 1990년 상하이시 노만구 문물보호단위 제17호로 지정되었고, 1993년 4월 원형대로 복원되었다.



〈영경방〉

○ 1922년부터 1926년까지 김구 선생이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장소로 상해 신천지 거리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노신공원(루쉰공원)〉

○ 1932년 4월 29일 한인애국단 단원 윤봉길이 일제가 훙커우 공원에서 천장절 기념식 및 상하이사변 승리 축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일제의 군부와 정관계 수뇌수가 있던 연단에 물통폭탄을 던진 윤봉길의사의 추모관이 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조선혁명간부학교 터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있음.

○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지차체 등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과제임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2일차 주요일정 (9월 25일) >

- 상해, 남경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다양한 의정활동 기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5.(수)

○ 장 소 : (상해) 송경령능원, 만국묘지
(남경) 천녕사(조선혁명간부학교 터)⇒금릉대학⇒회청교

○ 주요참석 : 9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 직원 3

○ 주요내용

- 송경령능원 내 한국인 묘비 참배
-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모여 민족혁명당을 창립한 장소인 금릉대학 방문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00~10:20	◦ 송경령능원 내 만국묘지 참배	
14:25~17:30	◦ 천녕사(조선혁명간부학교 터), 금릉대학(남경대학), 회청교	

❑ 주요 답사지

〈송경령릉원(구.만국공묘)〉

○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타계한 한인 독립운동가의 묘가 있는 곳으로 한국인의 묘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는데, 박은식 등 8개 묘는 고국으로 봉환되었다. 현재는 조상섭, 임계호로 추정되는 표석이 남아있다.



〈천녕사〉

○ 김원봉이 1932년 7월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제1기에서 3기생까지 총125명의 청년투사를 양성하였는데 이곳 천녕사는 1935년 3기생까지 총 125명의 청년투사를 양성하였다.



〈회청교〉

○ 쿼양의 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개설한 백범은 난징으로 은신처를 옮겨 자신의 뱃사공이었던 주애보를 불러 회청교에 살면서 고물상 행세를 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조선혁명간부학교 터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있음.

○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과제임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3일차 주요일정 (9월 26일) >

- 남경, 장사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다양한 의정활동 기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6.(목)

○ 장 소 : (남경) 중앙반점⇒이제항위안부기념관⇒남경대학살기념관⇒남경항공열사공묘

○ 주요참석 : 9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 직원 3

○ 주요내용

- 이제항위안부기념관, 남경대학살기념관
- 남경항공열사공묘 내 전상국, 김원영 열사 참배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8:40~11:30	◦중앙반점, 이제항기념관, 남경대학살기념관 견학	
13:00~14:30	◦남경항공열사공묘 견학	

❑ 주요 답사지

〈이제항위안부기념관〉

○ 이제항위항소는 1935년~1938년 간에 건축한 건물로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동운위안소"와 "고향루위안소"로 개조해서 사용했던 곳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위안소 유적지이며, 유일하게 살아있는 박영심 할머니가 지적했던 위안소이다.



<남경대학살기념관>

○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과 난을 당한 동포들을 위한 기념관

* 난징대학살이란 중일전쟁 도중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30만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되었다. 대학살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까지 6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39년 4월에는 1644부대가 신설되어 생체실험 등이 자행되었다.



<항공열사공묘>

○ 중국이 1932년 상해전쟁에서 전사한 공군을 안장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중국을 돕다가 희생된 외국인들도 안장하였다. 중국인 870위, 미국인 2,197위, 소련인 237위, 한국인 2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외교문제가 아니라 인권(여성인권) 측면에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충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할머니

○ 남경대학살기념관을 통해 과거 아픔의 역사를 기억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4일차 주요일정 (9월 27일) >

- 충북출신의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 자손 류전휘 전 후난대학 교수와 면담을 통한 생전 류자명선생의 항일독립활동 조명

❑ 방문목적

○ 류전휘(독립운동가 류자명선생 후손) 면담

○ 호남농업대학교 류자명전시관 견학 등 류자명 발자취 추적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7.(금)

○ 장 소 : (장사) 호남농업대학교, 류자명전시관

○ 주요참석 : 10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 직원 3
- 류전휘 전 후난대학 교수



성명 : 류전휘(劉展輝)
약력 : 후난대학 교수(1981~2002), 건축학과 부학과장(1984~1994)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제7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1993~199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호남성 위원회 위원(1998~2002)
※ 독립운동가 류자명(柳子明)과 그의 중국 부인 유측중(劉側忠)사이의 넷째 아들

○ 주요내용

- 후손인 류전휘 전 후난대학 교수(77세) 면담
- 류자명 선생의 생애와 구체적 항일독립활동 청취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9.27. 08:30~10:50	▪ 호남농업대학교 방문 후 류전휘 교수 면담	[illegible]
9.28. 13:00~17:00	▪ 칠성공원, 조선의용대본부 터, 협재산 견학	

❑ 주요 답사지

〈칠성공원〉

○ 7개의 봉우리가 하늘의 북두칠성과 비슷하다는 데서 '칠성공원'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창설 후 무한이 일본군에 점령되면서 본부를 광서성 계림으로 이동하였고, 이 곳에서 1주년을 기념하였다.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칠성공원)



〈호남농업대학-류자명전시관〉

○ 류자명(柳子明) - 충북 충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농학자.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와 조선무정부주의연맹 상하이 지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의열단장 김원봉의 비밀창모로 국내외의 고위직 일본인과 친일파 제거에 앞장섰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 개헌에 앞서 7인 헌법기초위원을 맡았다.





❑ 시사점, 기타사항

○ 충주시와 류자명 전시관 건립과 생가 복원 MOU를 체결한 후 추진에 진척이 없는 상태임.

○ 공산당 치하의 활동 등을 이유로 일부 항일운동가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

○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과제임

- 부친인 독립운동가 류자명선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독려하고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부탁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6-7일차 주요일정 (9월 29일-30일) >

- 독립운동지의 관리체계,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충북도의회 정책 반영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9.(일) - 9. 30.(월)

○ 장 소 : (계림) 칠성공원(조선의용대본부 터)⇒첩채산
(중경) 임시정부청사⇒광복군총사령부 터

○ 주요참석 : 9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6, 직원 3

○ 주요내용

- 계림의 조선의용대본부 터 견학
- 중경의 임시정부충칭청사와 광복군총사령부 터 등 견학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9.29. 14:00~ 17:40	◦ 임시정부충칭청사, 광복군총사령부 터 견학	
9.30. 08:00~ 10:40	◦ 김원봉장군 집터, 해방비거리 문학탐방	

❑ 주요 답사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 청사>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중경으로 옮겨 온 뒤 입주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청사이다. 1945년 1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요인들이 이 곳 연화지로 옮겨와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광복군 총사령관 터>

○ 1942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할 때까지 광복군총사령부는 이곳을 거점으로 일본군 점령 지역 내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김원봉장군 집터>

○ 조선의용대 대장과 한국광복군 제1지대 지대장을 지낸 김원봉이 거주했던 집이다. 건물의 옛모습은 남아 있지 않고, 현재는 진료소로 사용되고 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임시정부충칭청사에 지속적인 방문과 기증이 이어지고 있음
- LG하우시스 청사 개보수 지원, 서경덕씨 한글안내서 기증 등

○ 유적지의 복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
- 광복군 청사가 충칭 중심가에 위치한 탓에 청사 부지의 토지 사용권을 매입하기가 어려움
- 문화와 체제가 다른 중국에서 복원을 진행하는 데는 긴 시간과 인내심을 요함. 따라서 실행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8일차 주요일정 (10월 1일) >

- 독립유적지 답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고, 자긍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10. 1.(화)

○ 장 소 :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신한촌⇒독립문 터⇒최재형 선생 고택⇒조명희 문학비

○ 주요참석 : 8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5, 직원 3

○ 주요내용

- 연해주 항일운동의 거점인 신한촌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항일 유적지 탐방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00~18:30	◦ 혁명광장, 신한촌 기념비 ◦ 최재형 선생 고택, 조명희 문학비	

❑ 주요 답사지

<신한촌 기념비>

○ 조선의 정치 불안과 빈곤으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되었던 1863년 하산 지역 남쪽으로 중심으로 최초의 한인촌이 생겨났다. 한인촌은 일제침략 때 항일운동에 크게 기여한 지역으로 많은 독립지사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1999년 8월 한민족연구소가 3.1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한촌 기념비를 설립하였다.



〈최재형 선생 고택〉

○ 연해주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최재형 선생이 1919년부터 거주하여 1920년 일본 헌병대에 의해 학살되기 전까지 살았던 생가이다. 그는 연해주 지역의 명사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아 한인을 위한 도로와 학교 건설 그리고 독립군의 자금 등을 지원했다.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였던 사람이 살았던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소박한데 이는 그의 곧은 성품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희 문학비>

○ 조명희선생은 충북 진천에서 출생해 서당과 진천 소학교를 다녔고, 서울 중앙 고보를 중퇴하고 북경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 3.1운동에 관계되어 투옥되기도 하였고 이후 도쿄대학 철학과에 입학해 1920년 '김영일의 사'를 발표하였다. 일본에서 귀국 후 1924년 '봄 잔디밭 우에'를 간행하였고 1928년 소련에서 망명하여 소련 작가동맹 원동지부 지도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하바롭스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동포 신문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 편집을 맡기도 하였는데 1937년 스탈린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대거 강제이주시킨 그 해 '인민의 적' 이란 죄명으로 체포되어 1938년 4월 15일 사형을 언도받고 그해 5월 11일 하바롭스크에서 총살되었다. 그의 사후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소련작가연맹회원으로도 복권되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건국10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신한촌이 한인거주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전무임
- 유관기관의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

○ 충북출신 조명희선생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다 사라져간 문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확인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9일차 주요일정 (10월 2일) >

- 연해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다양한 의정활동 기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10. 2.(수)

○ 장 소 : (우수리스크) 고려인 역사관⇒전로한족중앙총회 결성지⇒발해 옛성터

○ 주요참석 : 8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5, 직원 3

○ 주요내용

- 우수리스크 중심으로 주요 항일독립유적지 견학
- 고려인 역사관 방문을 통한 연해주 고려인의 삶과 역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사 확인

❑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30~11:00	◦블라디보스톡-우쑤리아 구간 전차탑승, 우수리스크 이동	
13:30~18:00	◦고려인 역사관, 전로한족중앙총회결성지, 발해 옛성터	

❑ 주요 답사지

〈고려인 역사 박물관〉

○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8년 건축된 이 건물은 연해주 일대에 집중적으로 뿌리내린 고려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다. 이주민의 역사와 이주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박물관과 고려인들이 만들고 계승해온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당 등이 있다.



<발해 엣성터>



❑ 시사점, 기타사항

○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고려인 역사관을 통해 고려인 이주역주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9.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10-11일차 주요일정 (10월 3일-4일) >

- 연해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다양한 의정활동 기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10. 3.(목) - 10. 4.(금)

○ 장 소 : (블라디보스톡) 구개척리⇒한러우정150주년기념비 ⇒극동연방대학교⇒4월 참변 추모비

○ 주요참석 : 8명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5, 직원 3

○ 주요내용

- 한러우정150주년 기념비, 구개척리
- 극동연방대학교, 4월 참변 추모비 등 견학

❑ 주진일정

일 시	내 용	비고
10. 3.(목)	◦한러우정150주년 기념비, 구개척리 답방	
10. 4.(금)	◦극동연방대학교, 교육과학박물관, 4월 참변 추모비	

❑ 주요 답사지

<구개척리-최초 한인 거주지역>

○ 키레이스카야 슬라보드키(한인 거주지)라 불리던 개척리 마을이 있던 곳으로, 현재의 포크라니치나아거리 1번지부터 아무르만에 접해있는 남쪽 언덕과 그 아래의 저지대 일대를 말한다. 1911년 콜레라 예방 목적으로 한인들을 신한

촌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후 기병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구개척리는 음사늑약 후 신채호, 이강, 장지연, 홍범도, 유인석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 한러우정 150주년 기념비 : 2015년 7월 고려인협회의 주도 아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세워진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비

<극동연방대학교>

○ 러시아 극동 지역 최초이자 최대의 종합대학교이다. 2012년 APEC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동방경제포럼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들도 자주 열린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된 세계 최초의 대학교이기도 하다.





〈극동연방대학교 교육과학박물관〉

○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자연사 박물관, 2층은 지역사 박물관, 3층은 지질학 박물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연해주 지역의 발해와 관련된 물품이 전시되어 있다.




〈4월 참변 추모비〉

○ 4월 참변은 1920년 4월 4-5일, 이틀에 걸쳐 일본군이 연해주일대의 러시아 혁명 세력과 한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과 우수리스크에 거주하던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당했으며, 이때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최재형도 희생되었다.




❑ 시사점, 기타사항

○ 한러우정150주년 기념비, 구개척리, 4월 참변 추모비 견학 등을 통해 이주한인들의 삶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음

참고2 공무국외출장 감상문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전원표 의원

▣목적

올해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 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나라위해 몸 바치신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구국투쟁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당시의 그분들에게 그러한 삶은 시대적 숙명이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올해 맞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은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바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기에 그렇다.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 여섯 명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시정부가 일본군에 쫓겨 이동한 경로를 따라 그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해당 지역에서 그분들의 흔적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상해부터 중경까지 임시정부 요인들이 겪은 고단한 삶과, 중국 각지에서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들을 들추어 보고 되새겨 봄으로서 앞으로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선진국의 선진 문화와 시스템을 학습하고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이국 만 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숨결을 찾아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연수 일정 및 이동 경로 (2019. 9. 24. ~ 10. 4.)

	방 문 지	이동수단	숙 소
1일차	▶상해 임시정부청사 ▶노신공원 윤봉길의사 추모관 참관	버스 버스	상해 대화홀리데이인 호텔
2일차	▶송경령능원 내 만국묘지 참배 ▶남경 천녕사(조선혁명간부학교) ▶금릉대학(현, 남경대학)방문	버스 버스 버스	남경 팬더금릉호텔
3일차	▶이제항 기념관 참관 ▶남경 대도살 기념관 참관 ▶남경항공열사공묘 참관	버스 버스 버스	장사 하워드존슨호텔
4일차	▶호남농업대학교 류전휘(류자명의子)교수 면담 ▶류자명선생 고택 방문	고속철도 고속철도	계림 이강폭포호텔
5일차	▶계림 칠성공원 조선의용대 본부 터 방문 ▶중경이동	버스 비행기	계림 이강폭포호텔
6일차	▶중경 임시정부청사 참관 ▶광복군 총사령부 터 참관 방문	버스 버스	중경 에스텔호텔
7일차	▶김원봉장군 집터 방문 ▶블라디보스톡 이동	버스 비행기	블라디보스톡 오로라 호텔
8일차	▶신한촌 기념비 ▶독립문 터, 조명희선생 추모비 ▶이동휘선생 거주지 방문	버스 버스 버스	오로라 호텔
9일차	▶고려인 역사관 방문 ▶최재형선생 고택 방문 ▶이상설선생 유허지 방문	버스 버스 버스	아스토리야호텔
10일차	▶한,러 우정150주년 기념비 ▶구, 개척리 탐방	버스 버스	아스토리야호텔
11일차	▶인천 도착	비행기	

▣주요 방문지 현황과 실태

◐상해 임시정부 청사

상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 정부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훼손될 위기에 처했으나 임시정부 청사를 지키기 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온 국민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상태로 보존 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를 지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묵과 할 수 없었던 상해시 당국이 재개발 계획을 철회함으로서 지금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료를 받으며 관리 운영 하고 있고, 청사와 주변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완공되어 외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청사 내에 진열된 가구나 집기류 등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소품으로 실제 사용했던 물건들이 아니다. 이렇게라도 관리 보존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관람을 마쳤다.

◐루쉰공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루쉰공원 내에 루쉰의 동상과 묘지가 조성되면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본래 위치에서 안쪽으로 이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관람 할 수 있다. 작고 초라한 기념관이긴 하지만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윤봉길의사의 일대기를 설명해주는 안내판도 배치돼 있다. 기념관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수시로 거미줄을 제거하는 등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입장료 징수로 인한 현지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과 지붕위에 잡초가 자라는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남경 천녕사(조선혁명간부학교)

옛 절터라고 한다. 지금은 폐허로 변했고 건물 안쪽에는 몇몇 종교인들이 신을 모신 듯 여러 가지 제사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건물 밖 우물터에는 아직도 샘물이 솟는다.
약산 김원봉장군께서 사재를 털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운 곳으로서 3기생부터 이곳에서 훈련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시인께서는 1기생으로 졸업을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남경(난징) 대도살 기념관

과거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비극적인 대규모 학살사건을 기억하고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일본이 일으킨 소위 '대동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무려 11개국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한일 강제병합을 통해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민족정신 말살과 신민교육에 온 국민이 희생당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을 명분으로 강제 동원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타국으로 끌려가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중국역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퇴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일본군의 무자비한 총칼에 희생되었다. 그중에서도 수도인 난징에서의 일본군은 30만이상의 순수 민간인을 무차별 도륙하고 7~8만 명에 이르는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경대도살은 그야말로 중국의 뼈아픈 역사다. 그 이름만으로도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 할 수 있지 않은가. 무거운 마음으로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당시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첫째, 전쟁 가해국인 일본과 같은 피해자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전시관의 사진과 설명 자료는 모두 한자와 영문표기 뿐이었다. 일본어를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방문, 관람 하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직접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그 이유다. 둘러보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는가.

둘째,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자료와 사진 등의 전시물품이 다소 빈약해 보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조차도 전시되지 않은 것, 그리고 당시의 힘없는 양민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만큼,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쇼킹한 컨텐츠가 없었다는 것, 그저 무덤덤한 전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전시관이 오히려 일본군의 만행을 적절히 희석시킨 결과물로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탓일까?

◐류자명선생 고택방문/류전휘교수 면담

류자명선생의 자제분인 류전휘교수 와의 면담은 우리 일행으로부터 많은 흥분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류자명선생은 바로 우리 충북 충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기 때문이다. 1919년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가 발각되자 중국으로 망명,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 세력을 결집시켜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항일운동 세력을 규합 하고자 노력하신 분이다. 광복 후, 귀국시기를 놓쳐 중국에 남아 호남농업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의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셨다. 선생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유일하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제분을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호남농업대를 방문했다. 작고 왜소한 체구에 소박한 차림의 류전휘교수님을 대하면서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향한 항일 의지를 불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긍지를 중국인

들에게 각인 시켜주신 류자명선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일 것이다.

류전휘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류자명선생의 조국 사랑과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류전휘교수님은 생전에 부친께서 사용 하시던 모든 연구 자료와 비품들을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데 써 달라고 고향인 우리 충청북도 충주시에 기탁 했다고 하셨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충주시에서는 고인의 유류품들이 전시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알게 됐다.

◐조명희선생 문학비

조명희선생은 우리 충북의 진천 출신이다. 일본 유학을 접고 귀국한 후 국내에서 활동 하시다가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러시아로 망명, 항일 문학 작가로서 활동 하셨다. 이후, 러 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일본스파이라는 죄명을 씌워 재판도 없이 처형했다 조명희선생도 이때 비밀리에 총살되었다.

극동 항이 내려다보이는 독수리 전망대 부근에 조명희선생 문학비가 있다. 오랜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주변엔 잡초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가 보훈처에서 예산을 투입, 이곳을 새롭게 단장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재형선생 고택

최재형선생은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극동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인 ‘지신허’로 이주했다. 이후 가출하여 러시아 선장의 양자로 입적, 러시아식의 교육을 받

았다. 이후, 유능한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부를 쌓았다. 최재형선생은 항일 의병모집과 의병활동, 그리고 독립군 자금에 전 재산을 바쳤다.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직접 양성하거나 보호했다.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결국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로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
최재형선생께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우수리스크에 그의 고택이 있다.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생의 마지막 거주지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선생의 마지막 고택이 선생을 기념하는 곳으로 사용됨으로서 미약하나마 선생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상설선생 유허지

이상설선생역시 우리 충북의 진천출생 독립운동가 이다. 비상한 두뇌로 27세에 성균관교수가 되었고, 독학으로 수학, 화학, 법학 등 신학문을 익혔다. 이후,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정사로 파견되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석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정통령으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나 건강이 악회 되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생을 마감 했다.
선생의 시신을 화장하여 뿌렸다는 우수리스크의 스위푼강변에 선생의 유허비가 있다. 선생을 추모하는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러시아정부의 협조를 얻어 세웠다고 한다. 작고 초라하지만 많은 한국인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가 된듯하다. 선생의 거룩한 삶이 후세의 우리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향후 우리의 과제

3.1독립 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으며 기획한 역사탐방으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거나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서 깨우침을 얻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이름 모를 민중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러나 한분 한분의 고통스런 삶이 녹아있는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목이 메도록 아프고 쓰렸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분들은 자신을 버렸을까.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고난의 삶이었을까.
결국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한, 후세들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저리도록 슬프다.

김구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김원봉 류자명 신채호 안중근 최재형 이상설 등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느꼈던 것은 바로 애국정신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사욕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일 게다.
아울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배우고 후세에 알리는 것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임을 알았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주변국 각지에 흩어진 독립투사들의 흔적들을 발굴하여 작은 기념비라도 세워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산재한 항일 유적지에 대한 한국어 일본어 표기를 병행하는 방법도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이므로 당사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류자명선생의 유류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충주시와 협의,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6박7일간의 중국 일정과 3박4일간의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일

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동안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음을, 수많은 애국지사 분들을 뵐 낯이 없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남은 일은 향후 과제를 충실히 이행 하고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순국선열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독립운동가 흔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허창원 의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어떤 출장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그 당시 처절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해외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기로 결정했다.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도내에 위치한 이상설기념관, 조명희문학관 등을 방문하며 사전 지식을 습득했다.
사전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9월 24일부터 상해를 첫 도착지로 10박 11일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개인적인 용무로 이미 상해를 3번 찾았고 4번째의 방문이지만 공무로 가는 의미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인들과 세 번째는 가족들과 네 번째 방문은 공무로 찾아 온 것이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어두웠던 과거를 생각하면 ‘과연 나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우리가 상해에 오기 전 방문했던 서울 효창공원과 김구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오후였던 것 같다.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기고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맞이한 후에 고국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던 기구한 운명.
어쩌면 조국의 독립은 보고 눈을 감았으니 이름 없이 도처에서 죽어갔던 이름도 남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비하면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상해를 떠나 중국 남경을 방문했다. 난징하면 일본군에 의해 자행

된 대학살이 떠오른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남경에서만 일본군에서 살해당한 민간인들이 삼십만 명에 이른다는 대학살! 이곳에서는 학살을 넘어서 대도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도살기념관을 나오며 정부를 의지하는 양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본군의 만행도 용서가 안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든 위정자들의 행태가 더 분개하게 만들었다.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고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대처 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 더욱 편치 않았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며 정치인이 바로서고 지혜롭게 현상을 대처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는 정치 상황에 지방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만 든다.
여러 도시를 거치며 세계 최대의 도시며 중국에서 마지막 방문지인 충칭을 방문했다.
마지막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충칭은 그 당시 임시정부청사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문재인대통령께서 방문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충칭을 뒤로하고 우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처음 가보는 블라디보스톡은 유럽풍의 느낌이 드는 도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로 가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선생을 만나게 된다.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하고 안중근의사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의 독립 운동의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그저 죄송하다는 것뿐이다.
과연 나라면 저 분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가족과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조국을 선택 할 수 있었을까?
솔직한 마음은 처음 연수를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의구심만 남았다.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일까?

우선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을 찾아내고 그 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도록 살아 있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독립운동 역사의 표지석을 마음 속에 세우다

연철흠 의원

우리 위원회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해외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기로 소속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주로 선진지 견학과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가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냥 답사만 하고 오는 것이라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하면서부터 점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5월, 서울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족대표 33인이 모였던 태화관 터,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던 탑골공원,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를 답사하였다. 위태로웠던 조선 말부터 일제 강점기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유적지를 답사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역사에 가정(假定)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랬다면 더 발전을 했을 수도, 아니면 근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 징용, 정신대, 독립운동가 탄압 등 일제에 의해 아픔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이 없었을 것이다.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생명까지 빼앗아 간 일제도 문제지만 자기만 괜찮다면 좋다는 부일 협력자들 때문에 민초들이 당한 고초는 너무나 컸다.

중국 상해, 남경, 장사, 중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등을 10박 11일 동안 답사하며 더 많은 아픔과 마주해야 했다.

2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타국에서 설움을 참아가며 독립운동을

위해 매진했던 그들도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귀한 자식, 부모,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해서 나라를 찾았지만 그 나라는 또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는 그 동강난 국토의 반쪽에 아웅다웅 살면서 국토가 작은 초라한 나라, 선조들이 물려준 유물이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비하하는 바로 그 나라를 찾으려고 청춘을 바친 선조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흔적을 해외에서 만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만났던 독립운동가들과 그 흔적에 대한 표지석을 마음 속 깊이 세우리라 다짐을 하며 귀국을 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 후손들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김구 선생님처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약소국을 침략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같이 타국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꽃피는 선진국이 되어 세계인과 더불어 널리 공생하는 세상이 되도록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기록하여 마음 속에 표지석을 세운다.

임시정부청사 역사의 길을 찾다

송미애 의원

기억은 좋은 추억일 수도, 아픔의 상처일 수도 있다. 일본과의 아픈 기억은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되 살아 난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선택하고 목숨마저 기꺼이 버리셨다.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쳐 이루고자 한 숭고한 투쟁의 목적지,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이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상해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 2019년 9월 25일 새벽부터 도청을 출발해서 10박 11일 일정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거쳐했던 임시정부 길을 찾아 떠나는 긴 답사를 시작하였다.

(상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거리 서금이로를 거쳐 백범 김구선생님의 집무실과 거처했던 곳을 시작으로 홍커우공원에서 매헌 윤봉길의사 의거 현장을 답사하고 윤의사가 처형당했던 그 역사 속 사진을 보며 가슴 뭉클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향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의거 당일, 윤봉길의사는 김구 선생을 찾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한 시간밖에 쓸 데가 없는 자신의 새 시계를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맞바꾸고 의거를 치렀다고 한다. 김구 선생도 죽는 날까지 윤봉길 의사와 맞바꾼 회중시계를 곁에 간직했다고 한다. 마지막 길을 생각하며 의거현장으로 떠나는 그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웠을까? 역사의 현장을 생각하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남경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터와 위안소 기념관)

남경역에 도착 후 천녕사로 이동했다. 독립투쟁의 전설적 영웅 조선 의용대장 약산 김원봉은 1932년 난징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고 125명의 청년투사를 훈련시켜 양성했던 곳이 바로 천녕사이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 폐허가 된 절터이다. 안내 하시는 분이 한번 와 봤던 기억을 더듬어 찾아오게 된 곳이다. 요즘도 그러한데 일제강점기 조선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언젠가 독립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모은 곳이기도 하다.

“김포 청소년 역사문화탐구단” 학생들이 천녕사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구 벽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가는길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정성스레 붙여 놓았다.

지금의 젊은이들의 애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곳 역사의 현장은 쉽게 찾을 수도 없고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경에 있는 조선의용대장 김원봉장군의 거주지였던 집터도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재개발 지역으로 곧 헐릴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곳 또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묻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이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후세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을 이야기 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역사의 도시 난징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난징대학살을 일으킨 곳으로 중국인들은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남경대도살기념관을 지었다. 중국인들은 학살이란 단어도 너무 가볍다고 여겨 남경대도살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다. 난징대도살이란 중일전쟁 도중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30만이란 시민을 6주간에 걸쳐 난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7만평 규모의 난징대학살 역사관를 설립하였고 매년 12월 13일에 추모식을 거행하여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과연 역사의 현장을 바로 알리는 일에 그리고 현장을 보존하는 일에 무엇을 해왔던 것일까? 일본 만행의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항위한부기념관을 찾았다.
남경 이제항위안소! 한국,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각지에서 수많은 소녀가 강제로 끌려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곳이다. 난징에만 40개가 넘는 위안소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아세아에서 제일 크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위안소 유적지이며 “박영심” 할머니가 생전에 증언을 했던 위안소이다.
그리고 이곳은 재개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박영심 할머니가 ‘내가 생활하던 방이 두 번째 건물(B동)19번방’이라고 증언함으로써 중국정부는 재개발을 멈추고 사상 유래 없는 60일만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위안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진열관을 나오려다가 ‘끝없이 흐르는 눈물’이란 이름이 붙은 한 할머니 조각상 앞에서 우리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다들 숙연해졌다. 젊음을 강제로 빼앗긴 할머니들의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정부의 무능함에 수많은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일제치하 일본의 만행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호남농업대학에서 류자명 선생님의 발자취를 쫓다!)
8시30분에 출발해서 박걸순 교수님의 도움으로 류자명선생님 아드님이신 류전휘 교수님과 만나기 위해 호남농업대학교를 찾았다. 중국도 우리와 같이 아침 출근시간은 차가 많이 밀렸다. 늦게 도착했지만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정문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류전휘 교수님의 모습에서 류자명 선생님이 살아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았았다.
우군 류자명 선생은 충주출신 교현초등학교 수원농고 충주에서 교사활동 3.1운동을 주도하였고 의열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
충주가 지역구인 정상교의원은 류자명 선생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동안에 충주에서는 류자명선생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단체장이 바뀌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증 받은 류자명선생님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몇 년째 충주시청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척박하고 낯 설은 이국땅에서 일제의 칼날에 맞선 당당한 모습, 외롭지만 의연했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러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지역구이신 정상교의원님과 함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류자명 선생을 홍보하여 중단되었던 선생의 기념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중국탐방을 끝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진천출신 이상설, 조명희선생이 활동했던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신한촌 기념비에 도착했다. 3개의 대리석 탑으로 각각의 탑의 의미는 ‘국내 항일운동세력’ ‘민주지역 항일운동세력’ ‘연해주지역 항일운동세력’으로 대표적 항일세력을 의미하는 곳이다.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의 강제 이주 명령에 의해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로 18만 고려인들이 40여일의 이주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화물칸에서 40여일을 이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처참하게 죽었다고 하니 고려인 동포들의 한과 설움의 역사에 가슴이 시리고 아파왔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아버지 최재형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우수리스크 방문)

우스리스크에 도착했다. 고려인 시베리아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연해주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최재형 선생의 고택을 방문하였다. 그는 전 재산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한인을 위한 도로와 학교건설, 독립군의 자금지원 등을 위해 쓰셨다고 한다. 그의 일대기를 되돌아보며 곧은 성품과 넓은 마음이 타국에서 헐벗은 우리 한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물질적인 안식처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해외독립운동가 활동지 답사 후 청주에서 만난 단재 신채호)

우리 위원회는 1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단재선생 일대기를 다룬 연극 '선택'을 관람하게 되었다.

연극에 함께 등장하는 북경 3인방인 신채호, 이회영, 김창숙 선생을 비롯해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선택. 그 선택의 가치가 지금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연극에서 일제강점기에 누구나 그러했듯,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언제나 조국을 선택했다. 여러 개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 선생의 기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택"은 관람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나에게 이번 관람은 더 새롭기만 하다. 그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여행 이기도 했다. 지난 9월 '선택'의 무대가 되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왔기 때문이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방청석에서는 관객 각자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된다. 여기저기 분노의 탄식은 물론 훌쩍이는 소리가 적지 않다. 일제와의 힘겨운 투쟁, 임시정부의 내적갈등,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위해 묵묵히 목숨을 던지는 장면이 관객의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부끄럽다. 그분들이 지켜 낸 역사를 정체시키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생활 속에서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부지불식간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 지,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친일잔재가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 양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 나서야 한다. 청산은 과거의 집착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선조들의 결연한 선택을 직시하고, 단호하며 원칙적인 현재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기억되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에서 답사한 많은 유적지들이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아프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역사의 현장들이었다. 수많은 애국자들 우리 후세가 이어나가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수 천만 명의 알 수 없는 애국자들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다.

류자명 선생의 발자취를 쫓다

정상교 의원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블로디보스토크까지 10박11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9월24일 새벽 4시에 충주에서 버스로 출발하였다.
공무연수가 처음은 아니었는데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 설레임 반, 그리고 숙연함과 무거운 마음으로 해외연수 길에 올랐다.
올해로 3.1운동과 임시정부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로 우리의 연수는 다른 선진국을 향할 수 도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우리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자는 의견을 모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뜻 깊고 의미 있는 연수를 해보자는 뜻에서 외유성 관광이 아닌 우리스스로가 떳떳한 연수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시대의 나라 잃은 국민 우리선조들의 독립운동상황과 나라를 찾겠다는 신념으로 타국 땅인 중국과 구소련 등지에서 젊은 청춘을 받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지 36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 그 긴 세월을 머나먼 타국 땅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과 봉사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절실히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출발 할 때부터 나는 여러분의 독립운동가분 중에 충주 출신인 류자명 선생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저의 지역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철학과 소신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몇 분 안 되는 우리

독립운동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운동가이자 원예학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중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애국자이다.
3.1운동을 시작으로 해방이 되기까지 그의 역정을 보면 정말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베이징2년, 톈진1년, 상하이7년, 난징2년, 우한2년, 충칭2년, 구이린2년, 푸젠3년, 타이완5년, 창사20년,기타 광저우, 항저우, 산둥, 구이저우, 장시, 안후이등은 잠시 거주로 지나온 길을 보면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없다. 막상 중국의 호서대학에 도착하여 류자명선생의 생가를 들려보니 중국당국에서 관리는 잘하고 있으나 그곳에 있는 유품은 다 가품이고 일부는 우리 독립기념관 자료로 등록하고 유품과 유고 136건 209점이 우리 충주시에 기증되었으나 아직까지 생가 복원은 물론 변변찬은 기념관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더 유명한 독립운동가요 농학박사이시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일하게 북한에서도 훈장을 받으셨고 우리나라에서도 훈장을 받으셨으며 또한 중국에서도 커다란 표창장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주시에서 늦었지만은 서둘러서 류자명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관을 지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류자명선생의 아들이신 류전휘 교수님은 “아버지와 자손들을 위한 기념관은 설립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대한민국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야지 되지 않겠냐?” 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그리고 뇌리에 계속 맴돌고 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류전휘 교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움과 함께 무거운 어깨의 짐으로 남게 되었다.

무능한 정치로 도민들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옥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올해 초부터 소속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해외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해라 해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역사 교과서처럼 공무국외출장을 할 생각하니 기대감이 낮아졌던 것은 사실이다.
첫날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했다. 임시정부청사는 옛날 그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루신공원에 있는 윤봉길의사 기념관에도 갔는데 그냥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날 송경령 능원에 잠든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를 방문하고서부터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여기에 잠들어 있는 조선인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가?' '지금 다시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분들처럼 이국만리에서 온 몸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중국에서 만난 일제강점기 흔적은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경 이제항위안소기념관에는 나라가 힘이 없어 위안부로 끌려와 일제의 성노예가 된 조선국적의 할머니 기록을 볼 수 있었다. 독립운동유적지나 위안소기념관 모두 선조들의 한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요즘도 한일경제분쟁으로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아픔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하고 싶다.

이제항위안소기념관을 방문하고 약한 국민들의 설움을 느끼면서 비록 지방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깊게 느꼈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충청북도로 돌아가면 무엇을 위해 도의원이 되었는지 찬찬히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
정치인이 안일하게 정치를 하고, 발전 없이 이익만 쫓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언제나 반복될 것이다.
요즘 일본제품을 불매하면서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 했었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재치있는 구호로 동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창하게 충북발전을 못 시켜도 최소한 충북도민이 억울하지 않게, 충북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도록 정치를 하고 싶다.